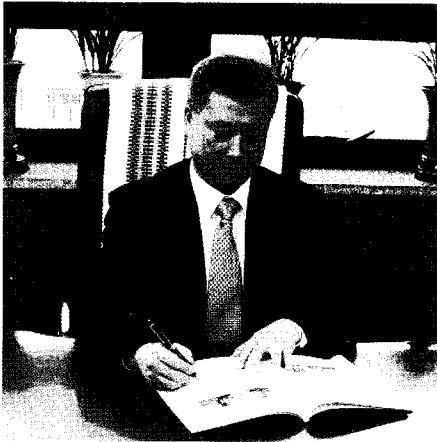


따뜻함과 소신, 전문 조경인의 인생 30년 이상걸 회장을 만나다



이상걸 |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글 | 박소현 과장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업 출신으로 대한 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에 선출된 이상걸 회장을 찾아서 취임소감과 앞으로 역점 사업 등 궁금한 점을 들어본다.

건설업의 20여개의 업종 중의 하나인 조경업 출신이 선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약 20년 전 부회장직을 역임하신 김병오 회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상걸 회장은 현재 한국조경수협회 울산지회장이며, (주)월성조경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뜻함과 소신, 전문 조경인의 인생 30년.

그는 1977년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로 임용되면서 조경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1980년 경북 경주에 월성조경을 설립하며 조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성실과 정직이라는 생활신조이자 경영철학을 갖고 1989년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34ha의 농지에 100여종 100만여 본의 관목, 교목, 초화류를 재배 관리하여 수목원 및 공원조성, 법면보호공사, 훼손지구 복구공사 등에 우수 조경수를 식재하는 한편 친환경공법을 도입하여 생태복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ISO 9002 인증업체로 경북임업환경연구소와 새로운 식재관리 및 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15여 년간 기술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골프장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현재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선리치 골프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등 30여년을 우수한 조경수 생산과 조경공사에만 전념하는 조경 외길인생을 걸어왔다.

“21세기는 비전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시대인 만큼 조경수 생산자는 생산업 부문에서 시공사는 시공부문, 설계사는 설계부문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업을 하는 많은 이들이 겪는 일중 하나가 전문지식도 없이 건설이나 건축업에 무작정 뛰어들어 결국 부도까지 맞는 상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30여 년을 조경공사에만 전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조경업에 대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봉사정신으로

이상걸 회장은 1994년 국제로타리 클럽 및 국제라이온스협회에 회원가입하여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1993년 대한적십자 울산봉사회 회원으로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돕기에 앞장서며 2004년 대한적십자 울산봉사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부회장직을 맡아 필요물품 제공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는 등 매년 음양의 지원으로 불우이웃 및 지역사회 발전에 열성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1990년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 제2~7대 대의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제1~3대 대표회원 및 감사, 제3~4대 울산광역시회 부회장 등 오랫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봉사하는 자세로 회원들의 권익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며 울산광역시 전문건설회관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20여 년간 그의 봉사와 끈기있는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조경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으로 발돋움

이상걸 회장은 조경수협회와 회원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숲의 역할’이 다시금 주요한 자원으로 떠오르며 조경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때, 조경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및 조경인 모두 양보다 질적인 생산을 위해 차별화된 가격형성과 전문성을 배양해야 할 것이며,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을 해소하고 고용인력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조경수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 등 정보가 공유되고, 산림청과도 상호 협력으로 생산자와 시공업자간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선도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협회나 산림청 및 입법기관 등이 더욱 유기적 협력으로 산지이용제도의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조경수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한국조경수협회 울산시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오는 12월 월례회 개최 및 2010년 사업으로 국내 및 해외 선진지 시찰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등 오늘도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이상걸 회장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전문조경인이다.



(주)월성조경 조경식재 광경

